

2017. SUMMER. 여름호(제2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의 조국의 품으로



6·25 전쟁 중 전사한
故 장복등 일병의 전투화

발간사

국군 전사자 9,550여 위 발굴,
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습니다

전시회

사진으로 보는 67년만의 귀향

인터뷰

붓을 잡은 연기자
이상현 캘리그래피 작가

홍보

(주)에스원과 MOU 체결

행사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해주신
소중한 발걸음

유가족 찾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 영웅

성과 및 계획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발굴계획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국군 전사자 9,550여 위 발굴, 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입니다.

먼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도 벌써 절반이 지나 날씨도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 창설 10주년을 맞이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호국용사의 유해를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서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12만 3천여 위의 호국영웅들이 계십니다.

국방부는 올해도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전국의 82개 지역에서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유해발굴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발굴은 경북 포항으로부터 강원 인제에 이르기까지 계획대로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해소재 제보에 참여해주신 참전용사 분들과 지역 주민들, 직접 발굴에 참여한 야전부대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관계 기관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위해 보건소(지소)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늘 함께 해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6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대령 **이학기**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숭고한 길...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산천 초야에 외롭게 잠들어 계시는 호국용사들을 기다리는 유가족 분들에게는 100년 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숭고한 길을 10년 동안 묵묵히 걸어온 이학기 유해발굴감식단장과 장병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강철부대는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그 유해와 유품 하나라도 더 발굴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해 유해발굴 현장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10주년과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소식지 2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활약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활동에 변함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2017년 6월

육군 제50보병사단장 소장 정재학

66

전우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해
유해발굴 현장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99



단 창설 10주년 특별 전시회 「67년만의 귀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단 ‘창설 1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더 많이 알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67년만의 귀향」 특별 전시회를

를 지난 4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6·25 전사자들의 유품과 사연, 관련 자료를 통해 6·25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찾기의 노력과 실적,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들의 이야기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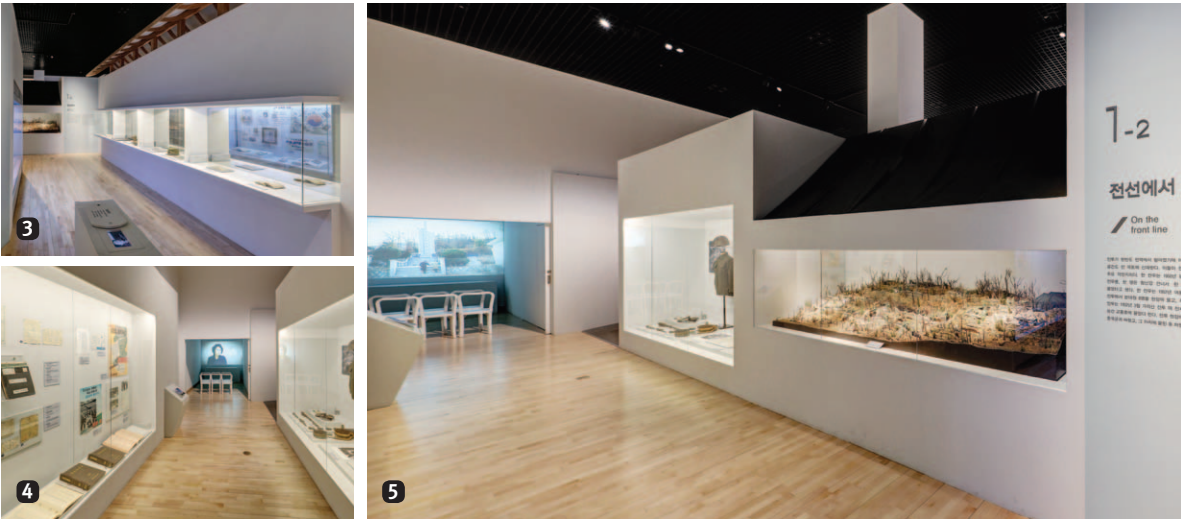
주요 전시 내용



1 「67년만의 귀향」 특별 전시회 메인 포스터 2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프롤로그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북한의 기습적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전하였다. 그중 16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다. 전쟁 중 2만 9천여 명의 유해가 수습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13만 3천여 명의 유해가 우리 산하에 남겨졌다.



③ 유가족들이 기증한 유품 ④ 실종자 확인서 / 전사자 명부 ⑤ 6·25 전투현장 모형

1부 나라에 바친 생명

6·25 전쟁 발발 당시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103,827명의 병력이 있었고, 경찰 48,273명이 복무하고 있었다. 기습 남침한 북한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했다.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한 후 국군은 반격을 시작해 압록강까지 이르렀지만, 중국군 참전에 따른 후퇴로 중부 전선에서의 교착전이 있었다.



⑥ 유해발굴 복장 / 도구 ⑦ 유해발굴 현장 모형 ⑧ 유해발굴 현장에서 발굴된 유품 2천여 점

2부 잊을 수 없는 이들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 남겨진 전우를 어떻게 잊을까. 가족에게 전해진 종이쪽지 하나가 무슨 위로가 될까. 남겨진 유해라도 찾아가 가족에게 보내드린다는 약속은 언제쯤 지킬 수 있을까.



9 아군 및 적군 유품 10 중앙감식소 모형 / 감식장비 11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유품 / 호국의 얼 함

3부 그리운 집, 가족의 품으로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이가 작은 함에 담겨 가족에게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렸고, 함을 든 군인은 문을 두드린다. 전사자의 귀향을 알리는 군인의 목소리에 가족은 한없는 눈물로 함을 어루만진다.



12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유품 / 호국의 얼 함 1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비전과 과제

에필로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국립서울현충원 경내 동편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본관이 있다. 이곳에는 아직도 전사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이 찾아온다. 새로 발견한 유해 중에 혈육이 있을까 해서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의 소식을 듣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한다.



풍성한 볼거리 및 참여 이벤트



event. 1 국방부 군악대대 찾아가는 음악회



event. 2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event. 3 홍규덕 교수와 함께하는 역사이야기



event. 4 이상현 작가의 캘리그래피 이야기



event. 5 분당탄천소아극 공연 「비목에 새긴 노래들」



event. 6 흑백사진 촬영 이벤트

‘빛을 잡은 연기자’ 이상현 캘리그래피 작가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는 글자에 표정을 만들고 감성이라는 옷을 입히기 위해 ‘빛을 잡은 연기자’ 또는 ‘한국 캘리그래피 디자인 시장의 개척자’라는 이름으로 전통 서예를 대중예술로 승화시킨 작가입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드라마 타이틀 <해를 품은 달>, <로열 패밀리>, 영화 타이틀 <타짜>, <혈의 누>, <쌍화점>,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 BI> 등의 다양한 작품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콜라보레이션과 독자적인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한국 캘리그래피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상현 작가와 단훈 캘리그래피 작업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단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67년만의 귀향’ 특별 전시회 타이틀 역시 이상현 작가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상현 작가가 흔쾌히 재능기부를 한 이유는 군 생활에서의 특별한 추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 ① 드라마 <해를 품은 달> ② 영화 <타짜> ③ 제품 BI <백세주>
- ④ 제품 BI <교촌치킨>, Google 한글 로고
- 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단훈 이미지
- ⑥ 단 10주년 「67년만의 귀향」 특별전시회 타이틀 이미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군대에서 당번병으로 53사단장(양우천 제 2군사령관 예편)님을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군 생활의 경험은 제가 작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단장님께서 해주신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나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날 작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작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 영웅의 유해를 발굴하여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보내드린다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흔쾌히 수락했고, 이학기 단장님과 인연이 되어 단훈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를 작업하면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67년만의 귀향」 캘리그래피 작업을 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셨나요?

6·25 전쟁 이후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던 순간의 감동과 노력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수십 년을 살아오셨을까하는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며 글씨 「67년만의 귀향」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낸 호국영웅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67년만의 귀향’ 특별전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학기 단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뜻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



저희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국민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여, 유해발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업(에스원)과 MOU를 체결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2기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2기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했습니다. 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 1기 서포터즈와 달리, 2기 서포터즈는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유해발굴사업을 알리며, 국민들에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약 8개월)동안 2기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대학교 · 역사적 장소 · 노인복지회관 · 지역 축제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통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에스원 MOU 체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에스원과 MOU를 체결하여, 에스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유해발



1




2

1 제2기 대학생 서포터즈 단체사진

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에스원 MOU 체결

굴사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75만 명에 이르는 전국 에스원 소비자 and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영웅, 명예 찾기’ 안내 리플릿이 배포되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이메일 · 고지서 광고 등을 통해 유해발굴사업을 알렸습니다. 또한, 전국 지사에서 운용하는 에스원 출동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가족 분들에게 시료채취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및 6·25 참전용사 증언청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8년부터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시작하여, 지난해부터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행정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울산(1차), 대구·경북(2차) 지역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참전용사의 증언 청취를 통해 전쟁 당시 전투현장, 전우의 유해가 묻혀있을 만한 지역 등을 촬영, 기록하였습니다.

중국군 유해 송환

지난 3월 22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28구의 중국 송환을 위한 입관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해 3~11

월 전국 각지에서 발굴한 중국군 유해는 전문가로 구성된 피·아 판단 심의를 거쳐, 양국 차관 주관 송환 행사를 통해 중국 측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군의 유해는 2014년 437구를 시작으로 올해 28구까지 총 569구의 중국군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및 송환

2017년 6월 22일,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행사가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미군 유해 1위는 지난 3월 30일 충북 영동지역에서 발굴되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美DPAA가 공동 감식한 결과, 1950년 7월 말 영동전투에서 전사한 L상병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송환된 유해는 미국 중앙 신원 확인소에서 최종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① 대구·경북 지역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② 6·25 참전용사 증언 청취 ③ 중국군 유해 송환 ④⑤ 미군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및 송환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해주신 소중한 발걸음

6·25 전자자 유해발굴현장 방문

국방부 장관, 1군사령관, 1군단장 등은 6·25 전쟁 격전지 유해발굴현장에 방문해, 유해발굴작업을 독려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각 계 인사 초청 사업 설명회

예비군 지휘관, 학군단장, 비상기획관 등을 단으로 초청하여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



4. 28. 1군단장 경기도 파주 368고지 유해발굴현장 방문



4. 18. 예비군 지휘관 초청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5. 22.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강원도 양구 백석산 유해발굴현장 방문



5. 22. 학군단장 초청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6. 15. 1군사령관 강원도 양구 21사단 유해발굴현장 방문



6. 2. 비상기획관 초청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남편, 아들이었던 호국의 영웅들, 오늘도 유가족들은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힘든 발굴과 감식 과정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을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일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으로서,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올해 처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故 조영환 하사는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 12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여, 2009년 3월 경상북도 포항시 무명 380고지에서 야전삽, 수통 등의 유품과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가족들의 유전자(DNA) 비교 분석을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지만,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아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장한 유가족 찾기 탐문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 22일 故 조 하사의 유해가 조규순씨와 부녀 관계로 확인되었고,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故 조 하사 이외에도 8사단 16연대 故 송덕이 하사, 8사단 故 안형민 하사, 5사단 故 김영숙 일병의 신원이 확인되어 총 네 분의 호국영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60여 년의 세월과 호국영웅의 영령이 고스란히



66

유가족 찾기 탐문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올해 1월 17일, 마침내 故 조영환 하사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99

담긴 유품을 전달하던 순간, 유가족들의 일렁이는 눈빛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무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저희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유해발굴사업은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입니다. 이에 유해발굴감식단은 전국 각지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있으며,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in Media

2017년 전반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대중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알리고, 국민들의 유해소재 제보 및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6. 6. KBS1 시사기획 창 「망각」



6. 6. KBS1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



6. 10. SPOTV KBO리그 「LG : SK 시구·시타 행사」

전반기 유해발굴현장 및 후반기 발굴계획 * 2017년 6월 26일 기준

전국의 82개 지역에서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유해발굴에 참여하여, 올해 전반기까지 약 11,000여 위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121분의 호국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



〈11사단〉 유해발굴 개토식



〈25사단〉 유해발굴 개토식



〈36사단〉 유해발굴 개토식



〈2포병여단〉 유해발굴 개토식



<20사단> 덕갈고개 530고지 발굴부대 굴토



<해병 1사단> 영덕 350고지 발굴부대 굴토



<22사단> 고성 650고지 유해발굴 상황 보고



<21사단> 양구 백석산 일대 약식제례



<30사단> 파주 368고지 약식제례 및 봉송



<31사단> 광양 백운산 1200고지 약식제례



<50사단> 철곡 숲데미산 대구예대 유해발굴현장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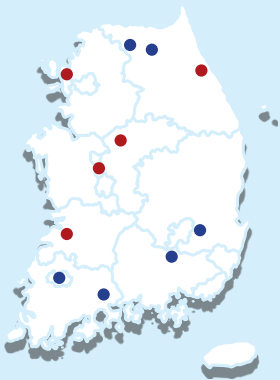


<51사단> 죽미령 120고지 미군부대 방문



<수도기계화사단> 가평 유해발굴현장 지도

2017년 하반기 발굴 일정



9. 4. - 10. 20.

- 1팀 **연천** 9. 4. - 9. 29.(4주)
- 2팀 **철원** 9. 4. - 10. 13.(5주)
- 3팀 **창녕** 9. 11. - 9. 29.(3주)
- 4팀 **철원** 9. 4. - 10. 20.(6주)
- 5팀 **인제** 9. 4. - 10. 20.(6주)
- 6팀 **인제** 9. 4. - 10. 13.(5주)
- 7팀 **화천** 9. 4. - 9. 29.(4주)
- 8팀 **광주** 9. 4. - 10. 20.(6주)

10. 16. - 11. 10.

- 파주** 10. 16. - 11. 10.(4주)
- 제보지역발굴** 10. 16. - 11. 10.(4주)
- 파주** 10. 16. - 11. 10.(4주)
- 제보지역발굴** 10. 23. - 11. 10.(3주)
- 세종** 10. 30. - 11. 10.(2주)
- 강릉** 10. 23. - 11. 10.(3주)
- 증평** 10. 16. - 11. 10.(4주)
- 정읍** 10. 30. - 11. 10.(2주)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우리는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 호국영웅의 소재를 제보해주세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접 매장, 목격 또는 들은 사실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제보해주세요!
(제보전화 : 1577-5625)

유해 발굴시 포상금 지급 (최대 70만원)

2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가까운 보건소·보건지소, 군 병원, 예비군 동대 방문채취
보건소, 군 병원 방문 채취시 **무료 건강검진 제공**
전화신청시(1577-5625)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 발송(직접 채취)
현역장병은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위로휴가 제공**

3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사업

<6·25 전쟁 비군인 참전유공자를 찾습니다>

- 대상
징용된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병장, 유격대원,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징보원, 청년단, 호국장병, 종군기자, 철도·소방·법무공무원 등
- 예우 및 지원
참전 명예수당(월 22만원), 호환병원 진료비 감면, 국립호국원 안장 등

※ 상담 전화

국가보훈처 민원센터 : 1577-0606

국방부 참전업무담당 : 02-748-5239 / 5123

4 유골 없는 자 국립묘지 안장 절차 안내

<유골 없는 6·25 전몰자도 국립묘지 위패봉안 가능>

- 대상
 - 본가봉송 후 유가족이 산골하여 유골이 없는 경우
 - 묘지를 개장하였으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서류상 본가봉송을 하였으나, 유가족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경우
 - 본가봉송하여 매장된 유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상담 전화

국립서울현충원 : 02-826-6238

국립대전현충원 : 02-820-7070



대한민국 영웅,
명예 찾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문의전화 **1577-5625** (오! 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0698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대표번호 1577-5625 www.withcountry.mil.kr

디자인 (주)풍경인소풍 070-7433-1123 표지 글씨 이상현(캘리그래피 작가)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 기무사령부 ☎1337